

우유값 1당 원가 4원 오르자 흰우유 90원 올려

서울우유 3.6% 인상에 타 회사들도 50~70원 인상 계획 빵·커피 등 유가공 제품 인상 도미노 우려...서민경제 '시름'

폭염 속에 채소값도 오르고 원유(原乳) 가격까지 오르면서 식품물가 '도미노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원유가 오르면 식품 전반의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인상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8일 낙농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 제품의 가격을 오는 16일부터 3.6%(흰 우유 1l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가격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그동안 품질 향상에 노력을 쏟았지만 생산비용 증가가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2016년 원유 가격이 인하됐을 때는 다른 업체와 달리 흰 우

유 대표 제품의 가격을 40~100원 인하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다"며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우유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에는 원유가격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낙농협회와 유가공협회는 지난 달 20일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수매가격을 1당 922원에서 4원 오른 926원으로 결정했다. 원유가격 인상은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수매가격은 낙농협회가 각 농가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으로,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각종 우유 제품의 '원가 기준' 역할을 한다.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가 사 먹는 완제품 우유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특히, 낙농진흥회 소속이 아닌 서울우유가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낙농진흥회 소속 우유 회사들도 가격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원가 사정을 고려하면 우유 가격을 1당 최소 50~70원 정도 올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우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이스크림과 빵, 커피 등 식품의 전반적인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유 가격 인상은 우유를 이용하는 치즈·버터 등 유제품을 비롯해 빵, 라테 등 커피, 아이스크림, 분유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선달 달걀가격으로 우유값 인상에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채소값마저 상승,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채소 가격은 1주일 전보다 5.4% 뛰었으며 수산가공품은 7.0%, 생선류는 2.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에 취약한 양배추가 1주일 만에 41.2% 올라 가격 인상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시금치(33.4%), 깻잎(19.1%), 상추·배추(11.4%), 단무지(10.6%) 순이었다.

생선류 역시 고등어가 17.7% 올랐으며 참조기(0.7%)와 오징어(0.5%), 삼치(0.2%)도 소폭 상승했고, 수산가공품도 김밥 값이 7.3%, 참치캔이 6.0%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7% 뛰었다.

올해 초부터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채소와 우유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 여파가 한동안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제빵업계 관계자는 "원유와 우유 가격이 인상됐다고 해도 지금 당장 빵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생크림 등 우유가 많이 쓰이는 상품이 있지만 아직 제품 가격 인상을 말하기엔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1.45 (+1.29)	▼ 금리(국고채 3년) 2.07 (-0.01)
▼ 코스닥 783.81 (-0.81)	▼ 환율(USD) 1119.90 (-3.90)

정부,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주차장 등 공공장소 화재 우려...14일까지 안전진단

정부가 BMW 화재 사고와 관련,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BMW코리아는 리콜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중으로, 김 장관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주시고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37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

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를 거쳐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14일 이후부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자체의 정비명령은 어느 시점까지 차량을 정비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는 차주는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현재 BMW는 화재 위험이 있는 배기 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20일부터 모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을 청소하는 리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중지를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문에 따라 강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아시아나항공, 2분기 역대 최고 매출

1조6429억원...고유가에 영업이익은 11% 하락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428억)보다 11.2% 감소한 수치로, 고유가 영향이 반영됐다.

다만, 2분기 매출액은 10.1% 증가한 1조642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누적 매출액도 3조245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낸 데는 국내·국제 여객 수요가 꾸준히 늘고 화물사업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등 영업부문 전반에 걸쳐 고른 실적을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 감소도 유류비 지출(1000억원 증가)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 늘어난 영업비용 때문이지만 시장예측 수치를 웃도는 실적이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은 493억9100만원에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영업활동(4120억원)과 금융자산이나 그룹 사육 및 CJ대 한통은 주식 등 비핵심자산 매각(4천9억원)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면서 차입금 규모를 지난해 말 4조570억원에서 상반기 3조6137억원으로 줄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항공업계 성수기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육 매각 추가이익이 반영돼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022년까지 장거리 노선 비중이 60%인 장거리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30일 바르셀로나 노선에 신규 취항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효성 타이어코드시장 '존재감'...亞 4개국 점유율 40%

내구성 독보적...인도·태국 등 주요 고객사 2곳→12곳

효성이 아시아 타이어코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8일 효성첨단소재주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타이어코드 시장점유율이 22%(2016년)에서 40%(2018년)로 확대됐다. 2개에 불과하던 주요 고객사도 12개로 늘어나는 등 시장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 고무 내부에 들어가는 섬유 재질의 보강재로, 타이어 수명, 안전성, 승차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효

성첨단소재는 지난 1968년 국내 최초로 나일론 타이어코드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1978년 국내최초 독자기술로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생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효성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는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효성의 기술력과 글로벌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제품 제공 및 생산기술 지원

전략이 역할을 했다.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원하는 인도 시장에는 고강력 타이어코드를, 고무와 타이어코드가 분리되는 문제가 있던 업체에는 효성첨단소재주의 노하우를 접목해 부재료와 타이어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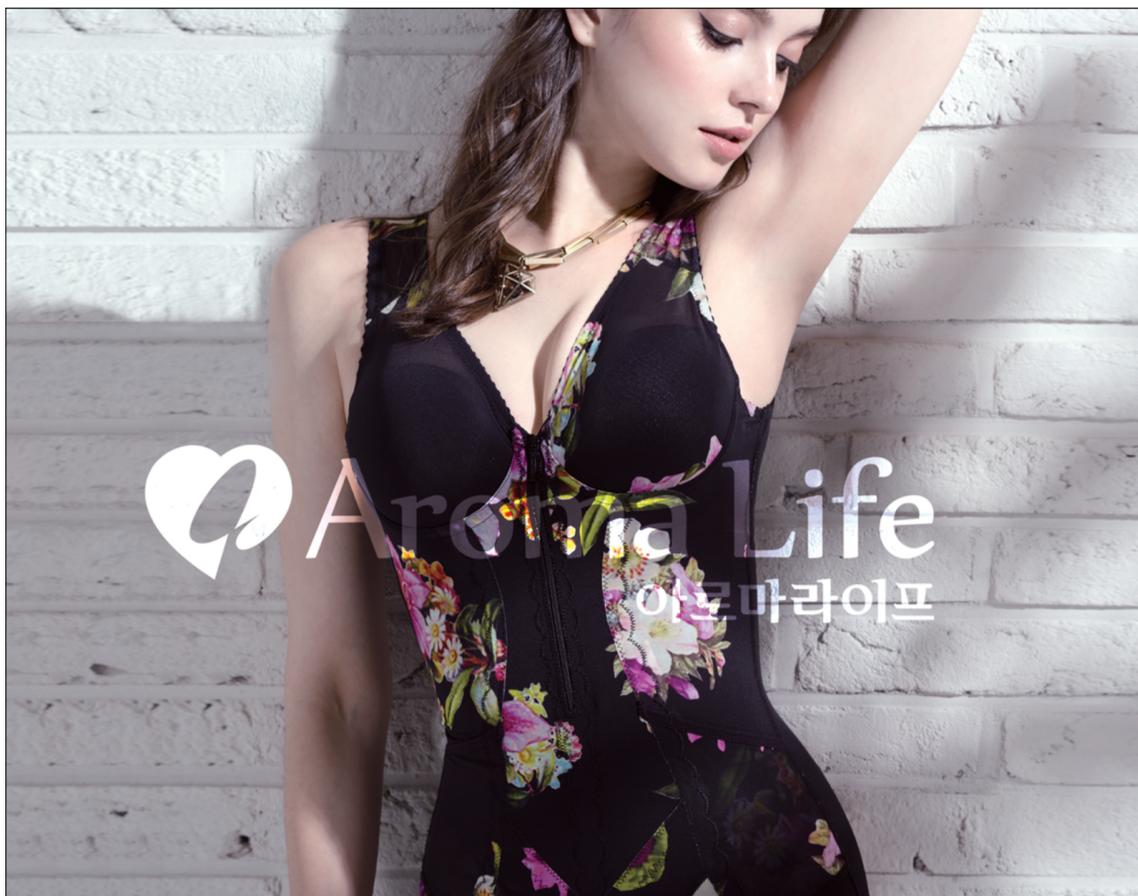
지난 2014년 신설한 테크니컬 마케팅팀도 고객사의 기술·생산 파트와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타이어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현지 고객을 대상 정기 세미나를 열어 제품 소개와 맞춤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중국 교류 확대·경제 활성화 광주상의-차이나센터 업무협약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광주시 차이나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중국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기로 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인과 중국 주요 도시 기업인 간 우의 증대,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력, 한·중 기업인 공동체 형성 촉진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차이나센터와의 협력으로 지역 기업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